

여름수련회를 위한 발빠른 준비

중등부 답사는 2월에,
수련회기도회는 5월부터 시작

중등부는 7월 말에 여름 수련회를 간다. 답사는 이미 눈 내리는 2월에 다녀온 상태다. 밑에 있는 사진은 올 여름 중등부가 함께 여름 수련회를 보낼 강원도에 있는 수련회 장소중 일부 사진이다. 이 장소는 중등부 교사로 함께 수고하는 박진수 집사의 친절한 소개로 알게 되었다. 해마다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준비할까 고민도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들의 기도라고 생각한다. 중등부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4월인 지금부터 준비하기로 했다. 5월 첫 주에는 교사들 모두 일일 찬양대가 되어 특송을 하고, 5월 둘째 주일에는 교사 단합회로 모여 함께 교제하며 학생들과 수련회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학생들을 더 신앙적으로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학부모들과의 만남의 자리인 학부모 간담회를 5월 마지막 주일에 준비하고 있다. 4월과 5월부터 여름 수련회를 이야기해서 다소 이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4면에서 계속)



사진설명: 중등부가 갈 예정인 강원도의 수련회 장소의 모습

UNICEF(유니세프)에 보내는
사랑의 돼지저금통

초등부 어린이들 적은용돈모아 사랑실천

초등부 어린이들은 요즘 용돈을 절약한 동전을 작고 예쁜 저금통에 넣고 주일이면 고이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교회에 나온다. 이 동전들은 UNICEF로 보내어지고 전 세계의 아프고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돕는 데에 쓰여질 것이다. 초등부에서는 2004년 초 겨울 수련회 때, 올해의 목표를 '세계로 가서 세계를 품는 어린이가 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3면에서 계속)

5월16일, 2004 무지개축제 개막

전체 4부, 11시부터 4시까지로 계획



사진설명: 지난 4월20일 장애인의 날 정립회관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의 모습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최창섭장로를 기획위원장으로 하여 그간 두번의 기획위원회 모임을 통하여 행사의 개요를 정하였다. 축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뉜다. 1부는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4부로 나누어 드리던 기존 주일예배는 7시30분에 시작하는 1부예배와 10시에 드리는 2-4부 연합예배이다. 유아부부터 소년부, 통합아동부까지의 교회학교는 자체예배를 드리게 되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각 해당 부속실에서 연합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게 된다. 예배가 끝나면, 한가족의 장이 강당주변에서 시작된다. 구역별로 식사를 준비하며, 또한 먹거리시장에서 먹거리를 구입할 수도 있다. 같은 시간 청년부에서 준비하는 놀이마당과 무지개사진관, 풍선아트

코너, 페이스페인팅 등의 축제마당이 연이어 열린다. 축제의 3부는 한몸의장으로, 1시부터 시작한다. 운동장에서 전교인운동회로 열리게 된다. 그리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4부 한마음의장으로 대예배실로 들어오면, 콘서트, 페스티벌, 감동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립전자 직원들과 함께한 “사랑의 레위 파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부(부장 김창안 안수집사)에서는 정립회관 강당에서 정립전자 직원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1부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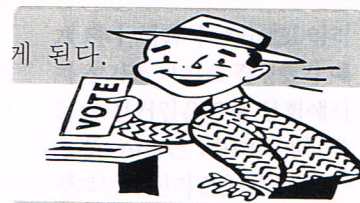
서 만남을 가졌고 2부는 작은 음악회로 준비되었다. 정립전자 직원 초청 음악회는 장애인부 활동 중 큰 행사중 하나이다. 정립전자에는 200여명의 장애우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22명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작년에는 50여명의 직원들을 초청했는데, 이런 함께하는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장애우들에게 편안한 만남으로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나눔에 그 취지가 있다. 그렇기에 작년의 미흡함을 되새기며 세심하게 행사일정을 준비하였고 더 좋은 만남의 시간을 위해 기도해왔다. 전날의 우중충한 날씨는 어디로 가고 맑은 햇살과 상쾌한 바람이 행사를 밝게 해주었다. 장애인부원들과 최중만 집사와 봉사부원들 그리고 이충길 집사와 복직선교부원들 및 강신후 협동장로 등 교우들 30여명이 정립전자 직원들을 맞을 준비를 해주었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희성 목사의 기도로 이 행사를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오후5시가 넘자 하나둘씩 정립전자 직원들이 자리를 채워갔고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과 발도 바빠져 갔다. 누군가 먹는 중에 쌓이는 정이 가장 두텁다고 했는데, 분주한 중에 담소와 웃음들이 오고갔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100여명이 참석해주셔서 그 따스함을 더해주었다. (2면에서 계속)

장로 시무임기 10년 피택 연령 60세로

4월 정기당회 결과

지난 4월 정기당회(4월17일)에서는 지금까지 안식년을 포함해 13년인 장로의 시무 기간을 안식년 없이 10년으로 줄이고 피택 상한 연령도 만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같은 결정은 장로의 시무 임기도 담임목사의 임기와 맞출 필요가 있고 변화하는 사회에 교회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당장 10년으로 줄일 경우에 파생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1992년에 임직한 장로(2기)의 임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1994년에 임직한 장로(3기)의 임기는 안식년 포함 12년, 1997년에 임직한 장로(4기)의 임기는 안식년 포함 11년, 1998년 이후에 임직한 장로(5기 이후)는 새규정을 적용한다. 한편 장로 피택 연령 만 60세는 그 기준을 피택년도말(피택년도 1월1일~12월31일 출생자)로 결정했기 때문에 생일이거나 선거일에 관계없이 선거가 있는 해에 60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피선거권을 갖



통합유아부 싹트네

2004 첫 야외예배

지난 4월18일 통합유아부 "싹트네"는 2004년 들어서 첫 야외예배를 정신여고내 잔디밭에서 드렸다. 올해들어 처음으로 밖으로 나와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다. 아이들뿐 아니라, 이모와 삼촌(통합아동부에서는 선생님을 이렇게 호칭한다)들 역시 너무나 좋아하고 아이들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의미있

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통합아동부 싹트네는 주일오전 9시30분부터 영아에서 취학전까지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안에서의 양육을 실천하고있으며, 예배는 유년부실에서 드리고 있다.

또한, 오늘 통합아동부 예배에는 지난 부활주일에 4부 예배에서 뮤지컬을 예배에 처음으로 공연하여 참석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은 청년부 뮤지컬 팀 J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공연을 한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 통합아동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3교구 11구역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형제 자매애를 나누는 구역 모임

3교구 11구역 구역 모임을 소개한다. 3교구 11구역은 주님의 교회 내 몇 개 안되는 전국구 구역중 하나로 매주일 2부 예배 후 11시부터 5층 중보기도실에서 모임을 갖는다. 주로 구리, 안산, 군포 등지에 흩어져 살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중 지역 구역공부 참석이 불가능한 70대부터 30대의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들이 참가하는데 벌써 수년째 같은 구역원이기에 진짜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형제 자매애를 나누고 있다. 구역원 중에는 홍보출판부, 성가대, 중보 기도팀, 안내부등에서 봉사하는 부원들이 있는가 하면 매주 두 번째 주일은 전 구역원이 3부 예배 후 식당 봉사를 하기도 한다. 올해부터는 김종길 구역장, 이일금 권찰이 중심이 되어 매주일 그중에 생일을



맞는 구역원의 생일 파티 챙겨주기를 실시하며 5월에는 야외 바베큐 파티, 6월에는 구역식구 중 한사람의 간증, 10월에는 작년에 갔던 안면도 야외예배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가족이 새로 참가하여 계속 번식하는 구역이 되고 있다.

(1면에 이어서)

정립전자 직원들과 함께한 “사랑의 레위 파티”

오후6시부터는 2부에 준비된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김영숙 권사의 제자인 김다영학생의 가족과 교우들이 준비해주

었다. 피아노와 색스폰으로 yesterday 등을 연주했는데, 잔잔하게 퍼지는 감미로운 색스폰의 여운은 베사메무쵸를 연주할때 분위기가 무르익어 모두가 박수로 함께 했다. 그리고 남성 듀엣이 이어져 흥겨움을 더했으며, 봄날의 즐거운 나들이는 윤덕영 목사의 기도와 축도로 마치고 내년을 기약했다. “사랑의 레위 파티”를 통해 정립전자 직원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을 수 있었다. 당장 그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를 갖지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쌓아감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의 지체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자리를 통하여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말고 장애우들에게 좀 더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함께 발맞추어 걸으며 주님의 향기를 뽐낼 수 있는 장애인부가 되길 고한구 장애인부 총무는 소망했다.

모임 소식

참다운 교회공동체의 사랑을 만끽하는 순간

청담,노원 구역의 연합 모임 소식

청담과 노원 구역이 당진에서 구역 모임을 가졌다. 연합 구역 모임에서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담과 노원구역은 지난 17, 18 양일 간에 걸쳐 당진 왜목마을에 있는 '프리티안 펜션'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만남을 가졌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 교회내에서도 어울릴 기회가 없었으나 노원구역장(장득순집사)과 청담구역장(최귀옥집사)의 노력으로 구역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양측 모두 아이들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이 참여함으로 거의 50여명에 이르는 대인원이 바베큐로 식사하는 모습은 어느 수련회 못지 않게 기쁜 분주함이 었다. 식사를 준비한 청담구역의 김영주 D집사를 비롯한 식구들의 헌신에 노원구역은 연신 감격하며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참다운 교회공동체의 사랑을 만끽하는 순간이었다. 남자들은 낮에 한 것으로도 모자라 불빛 아래서 족구로, 여자들은 노원구역 특허의 '할렐루야 놀놀이로' 힘을 겨루었는데 결과는 양측 모두 청담구역의 승리로 끝났다. 노원 구역은 되로 받고 말로 갚을 다음 모임을 메밀꽃 필 무렵 봉평에서 가질 것을 약속했다. 명랑쾌활한 김동률집사와 푸근한 미소의 홍윤기집사가 주인인 '프리티안 펜션'은 www.freecian.com 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친 소년부 예배

1시간 10분을 드려도 지루하지 않은 예배

4월11일 부활주일, 소년부에서는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담은 찬양예배를 드렸다. 찬양과 율동에 방해가 되는 의자를 모두 치우고 1시간 10여분동안 드러진 예배는 먼저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어느 광대의 고백(손경숙 집사)과 설교 시간은 재미를 넘어서는 감동이 있었다. 소년부는 주어진 시간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최고의 재미와 감동을 목표로 예배를 끊임없이 계속 디자인해 나가고 있다.

무지개축제 행사 분과위원확정

준비과정과 진행과정으로 분과위원을 나누어 조직

문동학목사를 대회장으로, 양동훈장로를 자문위원장, 최창섭장로를 준비위원장으로 하며, 협력위원으로 정재경,계학용,정규창,임동진,김소일,성백술,권오승,문창복,윤좌원,전세표,이병식,황기언,김현덕 장로로, 실행위원은 김성관 목사, 이창현 목사,우동운 목사,김현령 전도사로 하고, 행사진행을 위한 실행위원으로 박호길장로, 김완중집사, 유중화집사, 최상인집사, 조원호집사, 동현수집사, 김현배집사, 이석현집사, 신영숙집사, 조성곤집사등으로 하였다. 행사를 위한 분과조직은 크게 두부분으로 나뉜다. 행사전 준비 및 행사당일 행사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행사준비과정과, 행사당일 14부를 맡아 진행을 담당하는 행사진행과정이다. 행사준비과정,진행과정의 분과별 위원은 아래와 같다.

※ 행사진행 분과위원 (당일 행사진행)

1부 / 예배	2부 / 한가족의장	3부 / 한문의장	4부 / 한마음의장
유중화집사,김영봉집사 윤좌원장로 정영환목사, 이 호목사	조원호집사,최상인집사 동현수집사,신영숙집사 정희성목사,박호길장로 윤덕영목사,윤은성목사	이석현집사,윤민영집사 이창현목사,우동운목사	이동희집사,임창남집사 김완중집사 김성관목사,윤은성목사

※ 행사준비 분과위원 (행사전후 준비)

기획진행분과	의무,정리분과	홍보분과	교회학교/청년분과	봉사,안내분과
김완중집사 박호길장로 노봉옥권사 이동희집사 김성관목사 이창현목사	서준규집사 남장희집사 이종석집사 박익일전도사 우동운목사	유중화집사 태재승집사 이창현목사 이 호목사	신영숙집사 최상인집사 김현령전도사 윤은성목사	신영숙집사 김영봉집사 최종명집사 김한중집사 정희성목사

4월 좋은책읽기 모임

위기 (defining moments)

- 릭 이젤(Rick Ezell)지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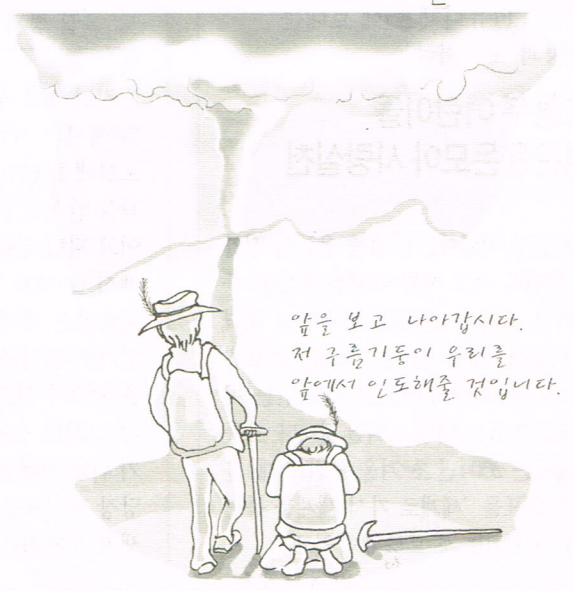
위기상황이 그저 위험이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교회 안의 여러 가지 모임 중에 좋은 책 읽기 모임이 있다. 이 모임에서는 한 달에 한권씩 좋은 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으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 이번 달은 <위기>라는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기라는 말은 영어로는 'crisis'라는 한 단어이지만, 음마다 뜻을 가지는 한자에서는 두

단어(危機)로 이루어져있다. 앞의 '위' (危)라는 단어는 위험을, 뒤의 '기' (機)라는 단어는 기회를 뜻하는 말이다. 즉 한자문화권에서 생각하는 위기란 어떤 위험한 상황은 그에 처한 당사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위기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저자 릭 이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겪게 마련인 각가지 위기들을 열거하고 그런 위기를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준다. 하나님에게서도 망치고 싶은 요나, 변화가 두려운 야곱, 감당할 수 없는 부담에 직면한 모

세,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요셉, 중병에 걸린 나아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바울 등의 사례를 통해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고난이나 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때로 느닷없이 불어 닥치는 고난과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하며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준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렇더라도 주저않고 말라.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위기상황이 그저 위험이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다.

오늘 기도



청년2부 사랑의 봉사활동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청년2부는 지난 18일 봉사주일을 맞아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루디아의 집과 마천동에 위치한 무지개 홈스쿨을 방문하였다. 매달 세 번째 주에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봉사자뿐만 아니라 이동을 도맡아 줄 차량봉사까지 모두가 청년들이 자원하여 이루어진다. 루디아의 집은 시각장애인 할머니들이 계시는 곳으로 청년들이 할머니들의 눈이 되어 1:1 산책 봉사과 근력유지를 위해 체조를 같이 한다. 무지개 선교회 부속기관인 무지개 홈스쿨은 정신지체장애아들이 있는 곳인데 청년들이 음식재료를 준비하여 저녁식사를

를 차려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청년들이 겨울 동안 아이들이 덮던 이불을 세탁하고 화장실을 비롯하여 방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는 등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하나님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년2부의 나눔과 섬김의 활동은 매달 세 번째 주에 계속된다. 청년 1부는 4부예배 후 모임시간에 4월에 생일을 맞은 사람들을 축하해 주었다.

과워포인트그림과 영상을 통해

불어성경을 유럽문화와 알기쉽게 연결지어

우리교회 주경복 집사는 현재 불문학과 교수로서 불어성경을 공부하며 유럽 문화를 함께 배우는 과목을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3층 소년부실에서 매주 진행하고 있다. 개신교의 직접적인 신학적 뿌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한 장 칼뱅(J. Calvin)에게서 시작되는데, 칼뱅은 불란서 출신의 신학자이다. 우리는 영어나 독어 성경은 비교적 친숙한데 반해, 불란서 성경은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주경복 집사

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불어성경을 유럽문화와 연결지어 과워포인트를 통한 그림과 영상을 통해 성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하게 과목을 진행해 가고 있다. 관심있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참여한다면 많은 신앙적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십대들의쪽지 발행인 김형모씨 초청

비전팀 두 번째 공개강좌

비전팀에서는 다음주(5월 2일) 오후 1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십대들의쪽지' 발행인 김형모씨를 초청하여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공개강좌를 갖는다.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4일 수요성경공부 시간에는 홍민기 목사(브릿지임팩트 대표)를 초청한 바 있다. 김형모씨는 현재 국무총리실 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 가정교육 전문위원이기도 하다. 1984년부터 매월 '십대들의쪽지'를 30만부씩 발행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단체에 우편을 통하여 무료로 발송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편지 상담을 도와주고 있다. 1999년에는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선정 '건전문화 부문' 청소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공개강좌에는 교회학교 교사, 비전팀 뿐 아니라, 청소년사역에 관심있는 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무쪼록 비전팀의 계속되는 연속 공개강좌들을 통해 우리교

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소년 사역의 올바른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월3일 친교실 새롭게 오픈 우리교회 친교의 중심지로 명실 공히 자리 잡기를

지난 금요일(23일) 1층 로비에 있는 친교실에 커피원액을 맛있게 내려 마실 수 있는 커피기계가 들어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친교실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식과 조명, 그리고 친교실 운영을 위한 물품들이 하나 둘 5월 3일 오픈에 맞춰 준비되어 가고 있다. 몇몇 권사와 여집사들이 이 일에 참여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메뉴판과 꽃장식도 근사하게 준비하고 예쁜 잔들을 모아놓은 찬장도 준비되어 있다. 메뉴는 갖가지 종류의 커피로부터 과일주스와 녹차, 탄산음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

들을 갖추고 있다. 아무쪼록 5월 3일에 오픈을 준비하는 친교실이 그 이름처럼 명실 공히 우리교회 친교의 중심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기대한다.



사진설명: 새롭게 단장하고 5월3일에 오픈을 준비하는 친교실 모습

체력이 튼튼해야

어떤 교회 사역도 힘 있게 할 수 있어
춘계 테니스 모임을 마치고

지난주 우리교회내 테니스 회원들은 배재 중고등학교 안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서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춘계 테니스 친선 대회를 가졌다. 평소에 운동 부족이었던 회원들은 마음만 앞서고 몸의 움직임이 잘 따라주지 않아 땀만 더 나고 볼 감각도 흐려져 자신들의 체력한계를 실감하며 앞으로 더욱더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 회원중 신정웅 집사는 체력이 튼튼해야 어떤 교회 사역도 힘 있게 할 수 있다며, 교회 각부서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운동을 통한 친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가 차후 교회 안에 다양한 운동을 통한 친교 모임들이 더욱더 많아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1면에 이어서)

초등부 어린이들 적은용돈모아 사랑실천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다가 UNICEF의 어린이 돕기 운동을 알게 되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정성으로 모은 예쁜 저금통을 열어 그 이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돈은 UNICEF로 보낸다. 지금까지 12개나 되는 작은 돼지들이 벌써 모아졌고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동전을 모으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30만원 정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신명기 14: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법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쓰이게 되리라 기대한다. 또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받게 되리라 기대한다. 10,000원이면 아프리카의 굶주린 한 어린이가 기아에서 해방될 수 있고 1,000원이면 약이 없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한 어린이에게 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초등부 어린이들은 이웃을 돕고 세계를 품는 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내가 먼저 나서고 있다. 또 그로 인해 세계를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초등부는 지난 주일에 성경퀴즈대회를 주일 예배 시간에 가졌다. 초등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과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영상을 크게 보여주며 방식으로 성경 문제를 출제하

고 다양한 문제 유형과 다채로운 진행방식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성경퀴즈대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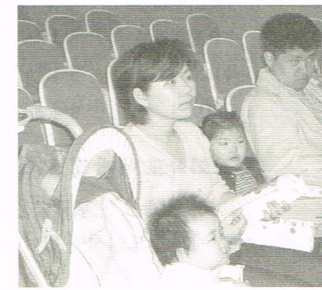
사진설명: 초등부의 성경퀴즈대회모습

5월12일 수요공부시간, 유아세례교육

2004년 첫 유아세례식이 오는 5월 12일(수요일) 저녁 성경공부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것을 준비하며, 지난 4월 18일(주일)부터 유아세례자를 위한 부모교육이 시작되었다. 3주간에 걸친 교육과 부모의 서약식이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유아들은 영아부에서 특별 탁아부를 운영하여 돌보기로 했다. 총 13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신청했으며, 부모가 모두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유아세례자가 입교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세례의 감동을 간직할 수 있도록 앨범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부모와 친지들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된 이웃들의 간접적인 참여도 있을 예정이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세례받은 부모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유아세례의 의미와 부모의 역할을 함

게 공부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향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기도하며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전체 교육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교회의 미래 일꾼이며,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들을 향한 성도들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내일을 책임질 이들을 향한 성도들의 격려와 박수가 있기를 기대한다.



1. 다음주일 성찬식

다음주일(5월2일)은 격월 첫째주일을 맞아 계획하는 성찬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피택자1일수련회

안수집사및 권사 피택자의 1일수련회가 오늘(4월25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3층 초등부실에서 있으며,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3. 청소년사역 공개강좌

5월2일 주일 오후1시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형모씨(십대들의 족지 발행인)입니다. 비전팀과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니, 교사와 비전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4. 부서별모임

- 교육위원회 미국연수팀모임 : 4월25일(주) 오전 10시40분, 4층 교회학교 사무실에서
- 앙코르합창단 모임 : 매주 오후1시, 5층 찬양대연습실에서
- 권사회모임 : 4월27일(화) 오전11시 3집회실에서

5. 자원봉사자 모집

함글함글편집부에서 교회신문 함글함글의 취재기자, 혹은 편집기자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또한 영상미디어 부에서는 교회행사시 영상촬영, 영상편집, 예배실황중계및 녹화 등의 영상미디어 사역을 위해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창현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5여선교회 올해 목표
중보기도실천

5여선교회의 올해목표는 첫째 중보기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교역자들과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하여, 여선교회 회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5여선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살롬의 집'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 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예배드리기와 찬양하기를 사모하는 '살롬의 집' 식구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면서 5여선교회 집사들의 참여도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도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5여선교회에 모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1면에 이어서)

여름수련회를 위한 발빠른 준비

아이들과 함께 평생 기억에 남는 여름수련회를 기대하며 마음으로 준비하고 답사를 시작한 것은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작되었다. 아무쪼록 올해 여름에도 각급 교회학교에서 시기는 다소 다르겠지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할 것이다.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나나 할 것 없이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 이미 아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며, 아이들로 하여금 여름수련회를 참석하고 싶은 동기를 갖게 할 것이다. 지금 교회학교는 무엇보다 사랑의 수고와 기도의 섬김을 함께 나눌 동역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세례식 안내

세례자격

1. 세례 : 교회 다닌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으로서 본 교회 등록된 교인 (만15세 이상)
2. 입교 : 유아세례 또는 영세 받은 분으로서 본 교회 등록된 교인 (만15세 이상)
3. 유아세례 : 만2세 이하의 유아 (부모가 본 교회 등록교인이면서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부모 모두가 세례교인이어야 함, 자녀와 함께 교육참여해야 함
※ 1층 사무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기록하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 교적이 확인되어야 참여할 수 있으니 소속교구, 구역을 확인하시고, 신청서의 주소란에 《주소》와 《교구》,《구역》 및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 세례·입교

1. 문답 교육 : 4월 25일, 5월 2일, 9일, 23일 (주일 오후1시 30분), 제 3집회실 1층 (담당 : 이호 목사)
2. 문답식 : 5월 30일(주일) 오후1시 30분, 2층 중고 수련실 (1층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교역자의 안내를 받아 문답식에 참여함)
3. 세례·입교식 : 6월 2일 오후7시 30분 (수요성경공부시) 중예배실(지하 1층)
※ 오후 7시까지 입구로 오셔서 교역자의 안내를 받아 명찰을 받으시고, 예배실의 지정된 좌석에 예배 30분전까지 앉으셔야 합니다.

청소년 세례·입교 안내

1. 문답 교육 : 5월 23일, 30일, 6월 6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4층 교회학교 사무실 (담당 : 김현령 전도사)
2. 문답식 : 6월 1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4층 교회학교사무실
3. 세례·입교식 : 6월 20일, 오전 9시 30분 주일학교 예배시 (중등부 : 소예배실, 고등부 : 중예배실)

유아세례 안내

1. 유아세례 부모교육 : 4월 18일(주일), 25일(주일) 오후 1:30 소예배실 (1층 로비 입구) (담당 : 정희성 목사, 자녀들을 위한 탁아실이 별도 운영됩니다.)
2. 문답식 : 5월 2일(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소예배실
3. 유아세례식 : 5월 12일(수요일) 중예배실 (수요성경공부시)
※ 오후 7시까지 지하1층 중예배실 입구로 오셔서 교역자의 안내를 받아 명찰을 받고, 지정된 자리에서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유아세례식에는 부모가 다 참여하며, 사진촬영은 유아세례식이 끝난후 가능)
*유의사항
통신교육은 없으며, 문답공부와 문답식에 전부 참여하여야 세례 입교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8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 간	장 소	대 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